

'여름밤 한옥마을 이야기'

전주시, 내달 5일부터 58일간 야간해설투어
올해 성심여고 골목길·향교길 등 담아

전주한옥마을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밤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인 전주한옥마을 야간해설투어가 운영된다.
전주 한옥마을 야간해설투어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여름 테마투어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1000여명의 여행객들을 끌어 모으며 인기리에 펼쳐지고 있다.
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야간해설투

어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저녁 7시 경기전 관광안내소 앞을 찾으면 무료로 1시간 동안 한옥마을 골목이 이야기와 함께 여름풍경을 즐길 수 있다.
올해 야간해설투어 코스는 경기전 관광안내소를 출발해 전통성당, 성심여고 골목길, 향교길, 남천교, 양사재, 오목대 당산나무로 이어져 다시 경기전 관광안내소로 돌아온다.

특히, 기존 코스가 은행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올해는 성심여고 골목길과 향교길 등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 여름 저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전주천과 남천교를 코스에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노을 지는 전주천의 모습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겨워할 이야기와 풍경 모두를 담았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을 코스에 연계함으로써 여름밤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여행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행복한 지역 공동체'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복정책 심포지엄이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김승수(전주시장) 상임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대응 나서

여름철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주시의 재난·재해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시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예비복보단계부터 기상상황 파악과 재난 진행방향 예측 등 비상대응체계를 총괄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자율방재단원과 안전모니터봉

사단, 안전보안관 등 주민들과 함께 붕괴우려가 높은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과거 저지대 가옥침수 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배치된 양수기 등을 활용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선다.

/송효철 기자

강제 출연·장학금 편취... '갑질' 전북대 교수 '법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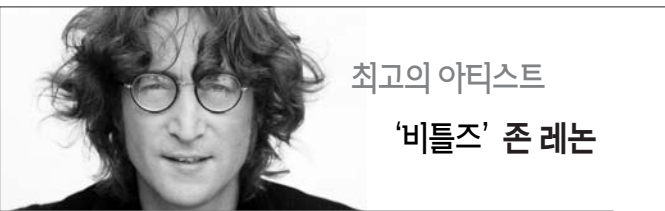
검찰, 불구속 기소... 4년 전에도 갑질 일삼아 파문 커질 듯

제자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에 강제로 출연시킨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해당 교수가 4년 전에도 갑질을 일삼은 전력이 있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검은 사기와 강요 혐의로 전북 모 대학 무용과 교수 A모(58·여)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장학금 2000만원이 학생들의 계좌로 들어오자 이를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화

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범죄행각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에 강제 출연시켰다는 내용이 제기되면서 드러났다.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다"며 "반기를 든 학생은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 2명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 감사에서 A교수가 자신의 개인 무용단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출연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15년 각종 갑질 문제를 일으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7월 복직한다. 최근 전북대 교수들의 음주운전과 추행 등 비위가 잇달아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강석훈 기자



최고의 아티스트

'비틀즈' 존 레논

그가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이매진-존 레논' 오늘 소리문화전당서
그의 사진·유품 등 총 340여점 전시

전 세계가 열광했던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의 짧지만 방대했던 삶을 음악, 예술 그리고 사랑으로 풀어나간 '이매진 존레논'이 20일부터 약 3개월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열린다.
존 레논은 음악가이자 예술가 그리고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1960년, 20세기 최고의 밴드 비틀즈를 결성 영국에서 국가 훈장을 받았다.
또한, 비틀즈는 영국 뿐 만 아니라 락 음악의 본 고장인 미국 음악 시장을 장악해 당시 젊은 층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대중문화의 역사는 비틀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생길 만큼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비틀즈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음악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빌보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로 꼽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1980년 12월, 향년 40세에 자신의 광팬이 쏜 총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존 레논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예술과 메시지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현대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1971년 발표한 그의 대표곡 'IMAGINE'은 38년이 지난 오늘에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추억의 애창곡이다.
존 레논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의 사진과 유품 총 3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전시장 입구는 존 레논이 피살당한 뉴욕 다크타 빌딩 건너편 센트럴파크에 위치한 추모 공간 스트로베리 필드를 재현했다.
이곳은 존의 죽음을 추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존 레논을 기억하며 평화를 기원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분명해져"라는 말을 남긴 존 레논은 1966년 전위예술가인 오노 요코를 만나, 둘은 예술적인 영감 교류를 통해 음악활동 외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한 반전평화운동에도 앞장

섰다.
한편, 입장료는 성인 1만5000원, 청소년 1만1000원, 어린이 9000원으로 예매시에는 20% 할인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여름철 물놀이, 도심에서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료 물놀이시설 운영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가까운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무료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 동안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종합경기장, 한벽문화관 등 3개소에서 여름철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종합경기장에는 각각 약 4,000㎡ 규모의 물놀이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대형 워터슬라이드, 물놀이풀장, 소형슬라이드, 유아풀장 등을 설치하고 전주종합경기장에는 유수풀, 물놀이풀장, 소형슬라이드, 유아풀장, 터널분수 등을 운영하는 등 장소에 따라 특색 있는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

다.
또한, 한벽문화관에는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이 가벼운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약 900㎡의 소규모 물놀이 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물놀이시설이 운영되면 전주시민과 여행객들이 멀리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용객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전북경찰-상담학회 업무협약

전북경찰과 한국상담학회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상담기법 발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부상 경찰관 등에 대한 심리지원, 면담 기법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양 기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 지원과 정책 수립 등이다.
강인철 전북청장은 "회복적 사법 개념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경찰이 추진하는 정책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이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대책과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의회, '아름다운 전주 관광사진 전국공모' 작품 전시

전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는 '아름다운 전주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시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사진에 담긴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한옥마을, 풍남문, 덕진공원, 차마종길 등 전주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입상 및 입선작 20점이 전시됐다.

/송효철 기자

상습 빈집털이 30대 검거

익산시 일대의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모(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경 익산시내 모 주택에 담을 넘어가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범행을 시작으로 불잡히기 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석훈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